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2월호
Dec. 2009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한인회 소식]

1) 김두남 회장은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라스크루시스에 간호사 협회의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라스크루시스 간호대학교 김명주 교수와 함께 알버커키에서 열린 김치축제와 그 외 한국의 복식문화, 음식문화를 알렸습니다.



<뉴멕시코주 간호사 협회에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as Cruces에 계신 한인회 이사님들과 함께>

2) 한인회에서는 한인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흰색 Bath 타일을 판매합니다. (1장-\$5.00)

[어버이회 소식]

어버이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T or C 온천으로 당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NMKLS)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학기가 끝나가고 겨울방학 맛을 준비를 하면서 2009년을 마무리합니다. 저희 학교는 뉴멕시코주 한인회의 한 부서로 여러 행사들을 치르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계적 불경기로 모두가 힘들었던 올해에도 저희 학교를 정성껏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에 보답하고, 어려운 변화 속에서 희망을 찾자는 뜻에서 2010년 경인년 "한국어 사랑"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현 학생들도 계속 한국어를 꾸준히 배우고, 더 많은 새 학생들에게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한국학교의 결의로 한 학기 수업료를 학생당 \$100로 낮추었습니다. 모든 한인가정들의 참여를 부탁 드리며 내년엔 더 많은 학생들과 한국어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학기 등록일: 2010.01.16 토요일 10 AM - 12 PM

봄학기 개강일: 2010.01.20 수요일 & 2010.01.23 토요일

Spring Registration: 2010.01.16, Saturday, 10 AM-12 PM

Spring Classes begin on: 2010.01.20, Wed. & 2010.01.23 Sat.



Already the Fall semester is coming to an end as we are wrapping up 2009. As a part of Korean American Assoc. of NM, we were able to host and participate in several events this year with undying support from many of you. 2009 has been an economically challenging year for us all, and we would like to convey our sincere gratitude for your love and support. In 2010 NMKLS resolves to find some hope in these hard times by offering our "Love for Korean" campaign. "Love for Korean" is our special way to provide Korean education to everyone. During the campaign, we are lowering our tuition to \$100 per student. We hope this offers an opportunity for new students to join us and share our love for everything-Korean. Please join us and help us succeed in our campaign. We look forward to meeting more new students next year.

청소년 / 성인 한국어 회화반

Youth / Adult Conversational Korean Classes

수요일 Wednesdays, 6 - 8 PM

봄 학기 Spring Semester: 2010.01.20 - 2010.05.05

청소년/성인반은 박광종 선생님이 생활 회화 위주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Ms. Kwangjong Park leads Youth/Adult classes which are taught in English with emphasis on conversational Korean.

아동 한국어반 (만 4살 - 12 학년)

Children's Korean Language Classes (Pre-K to 12th Grade)

토요일 오전 Saturdays, 9:15 AM - 11:15 AM

봄 학기 Spring Semester: 2010.01.23 - 2010.05.08

한국어로 수업을 하면서 한글과 한국문화/역사를 배웁니다.

The Saturday children's classes are taught in Korean, with emphasis on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history. (A minimum of four students are required to form a class taught in English.)

미술반 (만 4살 - 12 학년)

Art Classes (Pre-K to 12th Grade)

토요일 오전 Saturdays, 11:15 AM - 12:15 PM

지도교사 Instructor: 이시영 선생님, Mr. Siyoung Lee (MFA, U. Penn., 현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arts teacher to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미술반은 특별활동반으로 수업료 (재료비 포함) \$50 추가로 받습니다. 신청 받을 수 있는 미술반 학생수는 한정되어 있으니 등록 선착순으로 반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The optional art classes are offered at the additional tuition (including materials fees) of \$50. Since these classes have limited space, the students will be accepted in the order of paid registration.

한국학교 인터넷 게시판

NMKLS Information on Internet

한국학교에 관한 공지사항은 www.kaanm.com ("Korean School"을 눌러 주세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ew and updated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kaanm.com (click on the "Korean School" tab).

연락처 POC:

교장 전옥미 Okmi Jun Blemel, MBA, Principal
nm.kls@hotmail.com / 505-991-2160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내용 Contents

한인회 소식/어버이회 소식/한국학교 소식 ▷p.1
알려드립니다 ▷p.2
유통기한이 지난 약, 복용하면 위험 ▷p.4
그 시간/잊지 못할 친구들 ▷p.5
어떻게 알버커키에 오시게 되었나요(2) ▷p.8
추천하고 싶은 Santa Fe와 인근지역의 명소 ▷p.9
위기 ▷p.13
기도/제대로 알고 먹자-트랜스지방산 ▷p.14
행복을 여는 작은 비밀번호 ▷p.15
알면 도움이 되는 업소 정보/종교 소식 ▷p.16
세계의 다양한 크리스마스 풍습 ▷p.17
뉴멕시코 한인업소 ▷p.18

광야의 소리는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알려드립니다!

www.dabdate.com으로 접속하시면 한국의 KBS 9시 뉴스를 매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 화면을 두 번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WHO가 추천하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예방수칙



♣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고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재채기 또는 기침을 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 씻기
- ▶ 손 세정제를 사용해서도 손 위생 실천
- ▶ 아픈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 ▶ 잘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자주 운동하기
- ▶ 만약 당신이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있다면, 마스크 착용하기

♣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 ▶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지 가벼운 증상만 있을 뿐, 항 바이러스제와 같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특히 기왕에 다른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나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 만약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느낄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고, 쓰고 난 휴지들은 주의해서 버리기
- ▶ 직장이나 학교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피하기
- ▶ 만약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 ▶ 일단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 섭취하기
- ▶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 ▶ 확진환자는 적어도 7일, 또는 증상이 지속되면 7일이 지났어도 증상이 없어진 후 하루를 더 자발적 격리하기

♣ 타미플루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 ▶ 타미플루는 의사들이 처방이나 보건소장의 판단에 의해서만 됩니다.

♣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을 포함한 만성 호흡기계 질환을 가진 사람
- ▶ 심장병, 당뇨병, 만성적 대사질환, 신장이나 신경제, 혈액계에 질환이 있는 사람
- ▶ 면역이 억제된 환자 (예를 들어서 암이나 에이즈 환자)
- ▶ 임신부(특히 2-3개월 된 임신부)
- ▶ 비만인 사람
- ▶ 흡연자

♣ 신종인플루엔자에 어떻게 감염되나요?

- ▶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에서 배출되는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물방울들이 보통 1~2미터 이내를 날아가서 직접 다른 사람의 손에 묻거나 호흡기, 눈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묻은 물체의 표면에 다른 사람의 손이 닿고, 다시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호흡기, 눈으로 들어가서 전파되기도 합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은 무엇입니까?

- ▶ 일반적인 계절인플루엔자와 비슷합니다. 발열, 기침, 두통, 근육과 관절통, 목 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해외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현재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될 때까지 국제 여행을 미뤄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해외출장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국제회의는 진행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도록

록 합니다. 그러나 일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우, 회의 기간 중에 몸이 안 좋으면 호텔이나 집에서 쉬도록 하고 회의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만약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났거나 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후에는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타미플루를 투약 받게 됩니다. 만약 타미플루를 투약 받게 될 경우, 증상이 시작된 후 40시간 내에 또는 감염자와의 접촉 후 48시간 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위험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건강한 어른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개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는 필요 없습니다. 증상들이 사라질 때 까지 집에서 쉬면서 진통제를 먹고,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고 3일이 지나도 열이 내리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에 따라서 타미플루를 투약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어른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즉시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십시오.

- ▶ 열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 ▶ 가슴 부위가 아플 때
- ▶ 숨쉬기가 곤란할 때
- ▶ 어지럽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
- ▶ 음식이나 물을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탈수 증상이 나타날 때

♣ 위험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건강한 소아청소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개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는 필요 없습니다.
- ▶ 엄마나 아이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유 수유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 ▶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에게 아스피린이 진통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이 시작된 후 7일간 또는 7일이 지나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후 1일간은 소아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합니다.
- ▶ 아이들은 탈수를 막기 위해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 소아청소년들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중

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즉시 의료기관에서 긴급하게 진료 받으십시오.

- ▶ 열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 ▶ 가쁘게 숨을 쉬는 경우
- ▶ 탈수, 경련, 과도한 졸음 상태를 보이는 경우

출처 : 질병관리본부. <http://flu.cdc.go.kr/>

[생활 속 건강]

유통기한이 지난 약, 복용하면 위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식의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민감한 편이지만 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집집마다 소화제나 해열제 같은 약은 물론이고 복용을 중단한 약들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제약회사들은 약의 유통기한을 생산일로부터 보통 2~3년 이내로 정한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는 것은 괜찮을까? 이 문제는 약 성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의 효능은 어떻게? 미국의 FDA-국방부의 사용기간 연장프로그램(Shelf Life Extension Program)에 의하면 군부대 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포장을 뜯지 않은 96종류의 약(藥) 1,122개를 테스트 한 결과, 84%의 약이 유통기한 후 평균 57개월 동안 효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항인플루엔자 약인 아만타딘과 리만타딘이 보관 후 25년이 지난 후에도 완벽하게 효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니트로글리세린(관상동맥 확장제)은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줘야 하며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제)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약효가 사라진다. 또한 경구투여 감기약과 같은 액체로 된 약물은 알약이나 가루로 된 약보다 유통기한에 더 민감하다.

하지만 이 결과만 믿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연구 대상이었던 약들은 밀폐된 용기에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최적의 상태로 보관이 된 약들이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모두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냄새 또는 맛이 이상한 경우에는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된다. 집안에 개봉 후 오랫동안 방치해둔 약이 있다면 당장 처분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출처: Harvard Men's Health Watch, August 2009

그 시간

어느날,
네가 누군기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날,
네가 누군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네가 누군기의 이름을
기슴으로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네가 누군기의 모두를
이해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누군기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샘물처럼 맑고 호수같이 잔잔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남들이 높이 보았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손이 나를 넘어뜨린 사람과
용서의 악수를 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희망으로 설레이기 시작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눈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쉬는 의자에서/하늘소리가

잊지 못할 친구들

김 준호 장로

사람은 살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귈다. 나는 내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을 다닐 때 그렇게 많은 친구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내성적 성격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따지고 보니, 지금 생각나는 중학교 친구 2명, 고등학교친구 2명, 그리고 대학 동창들이다. 대학 동창들이야 모두 합쳐 열대어섯쯤 되니 잊어버릴 수 없다.

해주에서 1.4후퇴 때 인천으로 피난 나와서 황해 중학(피난 중학)을 거쳐 인천 고등학교에 입학 되었는데 그때 인천 고등학교는 입학시험 점수 순으로 반을 나누었다. 다행히도 나는 Top 60에 들어서 제 1반이 되었고, 왈 "수재"들이 한반에 다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인지 우리 반은 반 대항 시합을 하면 의례히 일등을 했다. 예로, 웅변대회를 열면 우리 반 학생이 일등을 차지했고, 음악 경연대회에서도 또 일등을 받았다. 아마 학교에서 우리 반의 학생들이 과연 우수한가를 실험했는지도 모른다. 공부 시간에 보면 영어 시간에 관치는 학생들은 따로 있고, 또 수학 시간에 으스대는 학생들도 있었다. 나는 수학시간에 괴수는 못 되도 꽤 소리를 내는 편이었다. 그런데 우리 반에 이 세민(李世民)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세민이는 수학이 맹문이라 수학선생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었다. 그 일로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친해졌다. 세민이는 영어 시간에는 선생님을 놀라게 하는 때가 가끔 있었다. 스칼렛 레터, 로미오와 줄리엣, 그 밖의 세계 명작들에 대해서 영어 선생님과

토론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겨우 영어 문법책을 읽고 암기하는 중인데, 이 친구는 셰익스피어가 쓴 언어가 현대어가 아니라는 등 전혀 딴 세상에서 놀고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 친구는 어디서 어떻게 영어를 배웠길래 이런 명작을, 그것도 영어로 된 것을 읽는 단 말인가. 정말 기가 막혔다. 한번은 그 친구 집에 가게 되었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 paperback 영어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야, 네가 이 책들을 다 읽고 이해한단 말이나?" "응" "도대체 네 머리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다 이해한다는 거야" 그 때 그 친구는 자기의 비밀을 조금 실토하기 시작했다. 가정교사를 두고 따로 영어를 배웠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4살 때 천자문을 다 외우고 썼다고 했다. 그리고 당나라 태종왕 李 世民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농담을 늘어놓았다. 당태종은 자기 친형과 친동생을 죽이고 정변을 일으켜 왕이 되고 중국을 통일해서 황금시대를 만들었는데, 자기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할 만큼 머리가 돌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식구가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 올 때 나의 큰 형님은 내가 서울 고등학교에 전학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셨다. 이것을 세민에게 말했더니, "참 잘되었다. 서울 고등학교에 박 준호라는 내 친구가 있는데, 만나 봐!" 했다. 나는 속으로 '왜 하필 준호야' 그리고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고, 기대했던 서울 고등학교는 돈을 많이 내라는 바람에 포기하고 경동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사실 그 당시 서울 고등학교 교장선생이 우리 외숙부의 제자여서 좀 봐 줄까하고 비벼봤는데, 아주 쌀쌀맞게 해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그 후 세민이가 만나 보라던 박 준호는 까맣게 잊어 버렸는데, 3년 후에 서울 공대 전자과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저 동료학생으로만 대할 뿐 별다른 친분은 없었다.

나는 그 후 USC로 유학을 왔고, 학위를 받은 후 첫 직장인 Schenectady, New York에 있는 General Electric 중앙 연구소였다. 2년 후에 앨버커키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그때 안장환씨를 만나게 되었다. 집도 사고 정원을 가꾸어야 해서 Osuna Nursery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꽃나무도 사고 비료도 사고, 나무 심는 방법도 코치를 받고..., 이러면서 보통 손님과의 대화라기 보다는 가끔씩 joke도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친분이 있어서인지 내가 사는 것은 무조건 10% 싸게 해주셨고, 나 역시 안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부담 없이 편안하게 대화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경화 장로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받았다. 안선생님 가정에서 우리교회에 땅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다. Hallelujah !! 우리들은 정말로 뭘 듯이 기뻐했다. 이것으로 우리는 땅을 가질 수 있었고 건축할 힘이 생긴 것이다. 그 당시 땅의 시가는 20만불이라고 했다. 나는 안선생님 가정에서 교회 부지를 기증해 주신 것은 그 분들의 신앙심이 아주 돈독하다는 또 하나의 징표라고 본다. 고맙고도 또 고마운 일이다.

그 분들은 남들이 쉬고 있을 때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고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잠자리에서 뛰쳐나와 일을 하셨다. 그 분들이 그런 결단을 안했다라면 우리교회는 여전히 셋방살이(?)를 하며 전전공공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교회 건축은 완공이 되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문제는 조경공사였다. 이웃에서는 조경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사항이 많았다. 안선생님은 그들의 요구 사항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약 2~3만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다. 우리들은 자금이 부족하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비용을 안선생님이 전담하신 것이었다. 또 고마웠다. 조경작업을 진두지휘하시며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에 잘 생긴 소나무를 심으며, 나에게 유머러스한 말씀을 해주셨다. "이 소나무는 몇 천불짜리인데 목사님 사모님께 드리는 것이니 잘 키우세요" 우리는 나무값이 얼마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그저, "정말 고맙습니다" 했을 뿐이었다. 아직까지도 그 아름다운 소나무는 잘 자라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앞으로도 안선생님 가정을 생각하며 오래오래 잘 키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꼭 사모님만을 위한 나무가 아니므로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될 줄 안다. 그 뿐만 아니다. 꽃피는 나무들의 배치와 정문 양편에 대칭으로 심은 나무들도 동양의 풍치를 더해 주는 것이 아닌가 !

우리 교회 건축완공을 축하하면서 첫 행사로 로마함 창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가졌었다. 그들은 로마로 유학 갔던 학생들로 구성된 성악가들이어서 음악소리며 분위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고 우리 아름다운 예배실을 꽉 채우고 넘치는 듯 했다. 한 가지 놀란 사실은 대원들의 소감이었다. 이렇게 음향이 좋은 시설에서 공연해 보기는 아주 드물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여러번 순회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느꼈던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해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예배실 size가 48피트x32피트x20피트로 최적 조건의 Music Concert Hall 임을 알게 되었다. 많은 교포들이 한자리에 모아서 이런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안선생님 내외분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 저런 일 등으로 우리들간의 끈끈한 인연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 분이 웨장암이라는 소식이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서러움이 복받쳤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성에 있는 동양 선교교회를 다닐 때, 성가대 총무로 새벽부터 곳곳을 성가대원들을 Pick up하며 열심을 다했던 명 호순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왜 하필이면 안선생님 입니까?"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남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더구나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 주셨는데...

안선생님에 대해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늘 만나면 재미있는 유머로 사람들을 웃게 하고 기쁨을 주곤 하셨

다는 점이다. 그 분의 탁월한 유머감각은 늘 내 마음을 시원케 해 주었고 나도 덩달아 맛장구를 치게 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 분이 joke를 많이 하다 보니 어디까지가 joke고 어디까지가 진실을 말하는지 헷갈린다고 하기도 했다. 정치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기도하고 교회생활이나 성경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목사님이 아니신가 착각할 정도로 정확한 지적을 하시기도 하였고, 좋은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분이 앨버커키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기까지는 눈물 나는 노력 이외에도 고객 한사람 한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해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에 늘 아침마다 산책하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와 물었다. "Did you hear that Chang has a pancreatic cancer?" "Yes, we heard about it." "He is a really wonderful man. I always go to the Osuna Nursery to get help from him." 야, 우리 동네에도 안선생님을 아시는 분이 사시는구나 생각하였다.

언제 한번 식사를 함께 할 기회가 있을 때, 나는 그 분을 "안 사장님" 하고 불렀다. 그분은 대뜸 대답하였다. "안사장이란 말은 조금 듣기 불편합니다." 정색하며 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때 알아차린 것이다. 어디엘 가나 알맹이 없는 사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류에 들어가기 싫었던 것이다.

우리가 Sunroom을 만들고 Orchid를 키우기 시작하고 그 분을 초대 했더니 아주 흐뭇해 하시며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축하한다고 꽃이 많이 핀 Bougainvillea를 선물로 주신 적이 있었다. 어떤 때는 기분이 나면 Christmas season에 포인세티아를 온 동네 친구집을 다니며 손수 전해주시기도 하셨다. 우리 뒷마당에 대추나무를 선물하시면서 앨버커키에서 잘 자라니 한번 잘 길러 보시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몇 해 동안 잘되는 편이 아니어서 금년 2009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되려나 보았는데 그야말로 대풍년을 이루어 새들도 좋아했고 우리도 푸짐하게 먹고 있다. 한번은 California Costa Mesa에서 봄에 열리는 세계적인 Orchid Show에 안선생님과 안 명순 집사님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참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왔었다.

나는 안선생님이 병마와 싸울 때, 이렇게 좋은 친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하나 사서 보내 드렸다. 책 제목은 "God's Way to Ultimate Health"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전기 밥술도 없었고 가스레인지도 없이 과일과 채소만 먹으며 살았다. 이것을 이 책이 주장하는 요소가 된다. 아마도 채식 주의자들에게는 좀 인기 있



는 책인 듯 싶다. 아픈 본인은 물론이겠지만, 힘들고 지치고 모든 곤욕은 안명순 집사님이 감당했으리라 생각된다.

그 후에 병세가 아주 호전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편지를 썼다. "당신이 앨버커키에 오면 우리집에 와서 음악도 들으며 축하하십시오." 나는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Beethoven 교향곡 제 9번)와 Verdi의 아이다 중에서 Trumpet March를 크게 틀면서 축하회를 가질 생각을 했었는데 성사가 안 되고 말았다.

몇 주전에 안선생님을 병문안 할 기회가 있었다. 들은 바로는 현재로는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만났을 때, 안선생님은 좀 힘든 표정이었고 자주 목이 마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Bottled Water를 자주 마시고 있었다. 나는 또 편지를 써서 Bottled Water중에서 Fiji나 Evian Water를 마시라고 권했다. 이유는 보통 Bottled Water의 산도(pH)가 7.0이하로써 산성이지만, 상기한 두 가지 물은 산도가 7.4정도라서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면으로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의학자들의 말은 체내의 산도가 6.5가 되면 암의 발생률이 대단히 높다고 한다. 왜냐하면 알칼리성 체질에서는 활성산소가 많이 중화되어 암의 발생을 억제하지만 산성체질은 활성산소의 중화량이 적어서 그 놈들이 간에 붙어 간암이 되고, 위에 붙어 위암이 된다고 한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음식물 중에도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주는 음식이 있고, 산성으로 만들어 주는 음식이 있으니 골라서 드시는 것이 좋을 줄 안다.

안선생님과 같이 소박하고 가식이 없고 진실한 인품을 가지신 분을 친구로 삼고 살았던 지난 30여년은 정말 귀중한 추억으로 남는다. 지난 10월25일 아침에 별세하셨다는 서혁상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비보는 앨버커키에 살고 있는 많은 교포들과 친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몰아 왔다. 추모 예배 때 세 분이 고별사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아까운 분을 잃었다는 허탈한 마음이 있었다. 허나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셨다고 믿는 마음이 있으니 위로가 된다. 유족들을 보며 특히, 안명순 집사님을 뵈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돌아설 수밖에 없는 나는 참 우울하기만 했다. 11월달 속회 모임 때, 장상순 권사님이 울먹이며, 안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찾아 뵈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그 집 앞에까지 가서 유족들을 찾아 뵈까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용기를 못내고 눈물만 흘리다가 그냥 돌아 왔다는 말을 했을 때 속도원들은 모두 또 한번 눈시울을 적셨었다.

나는 "안 장환 선생님! We miss you so much." 라고 외우고 또 외웠다..

어떻게 알버커키로 오시게 되었나요(2)

김기천 목사



2004년 4월 중순.

가끔은 차를 운전할 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오늘따라 텍사스 킬린에 있는 성 누가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 하는 김흥규 목사가 생각났다. 김흥규 목사는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동기동창으로 자주 통화를 하던 친구였다. 그리고 보니 이 친구와도 통화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다.

"김흥규 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나?" 평상시 던지는 나의 첫마디였다.

"나 성 누가 교회 사임했어." 예기치 않은 대답이었다.

"어떡하려고?"

"한국에 내리감리교회로 가게 되었어."

"언제 가는데?"

"이번 주간에 한국으로 들어가."

"그러면 누가 성 누가 교회로 오는데?"

"알버커키 감리교회 송종남 목사가 오기로 했어."

"알버커키?" "송종남 목사?" 이 단어들을 듣는 순간 갑자기 5년 전 알버커키에서 있었던 사건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일본 동경에서 달라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도중에 그 국제선 비행기를 비상착륙시킨 곳. 가족들이 공항에 준비된 군인 구급차를 타고 러브레이스 병원으로 간 일. 고맙게도 연락을 받고 러브레이스 병원으로 달려온 송종남 목사님.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한 주간 동안 남은 식구들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해준 송 목사님의 가족들..... 머릿속 필름은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가 한 장면에서 멈추었다. 장소는 뉴멕시코 대학 앞에 있는 프론티어 식당이었다. 송 목사님과 우리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버리토"란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었다. 여기서 나는 버리토와 칠리 스프의 맛에 거의 홀려있었다. 그렇게 맛있는 멕시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알버커키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들이 날 때마다 언젠가 다시 알버커키에 가서 버리토를 먹어볼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송 목사님이 여전히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흥규 목사의 말에 의하면 송 목사님이 텍사스 킬린으로 목회지를 옮긴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알버커키란 곳을 다시 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었다.

5년 전인 1999년 4월 29일, 아내가 러브레이스 병원 에서 퇴원하면서 알버커키를 떠나 온 후 송 목사님과 는 거의 통화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마도 학번과 나이 때문이라. 감리교 신학대학 학번으로

따지면 송 목사님은 3년 후배가 되는데, 나이로 따지면 뒤늦게 신학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보다 위이다. 본래 사람 관계에서는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묘한 관계 때문에 나는 쉽게 전화기를 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흥규 목사에게 송 목사님이 알버커키를 떠난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아쉬움과 더불어 송 목사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부 전화 한통 못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흥규 목사에게 송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물었다. 텍사스나 뉴멕시코나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지냈던 것 같다. 김 목사는 쉽게 송 목사님 전화번호를 찾아서 알려주었다.

김 목사와 전화 통화를 끊고 내친 김에 알버커키에 있는 송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여전히 운전하는 중이었다.

"송 목사님,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흥규 목사와 통화했습니다. 성 누가교회로 가신다고요?"

"예. 그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알버커키를 떠나게 되다니 섭섭하네요. 송 목사님게 시면 언젠가 알버커키에 가서 버리토를 다시 먹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이 말이 씨가 된 것이다.

"그러면 이 교회로 오세요." 갑작스런 제안이었다.

"아니 교회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예. 아직 후임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이동할 때는 후임을 정해 놓고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성 누가교회를 떠나는 김흥규 목사 후임에 송종남 목사님이 이미 정해졌듯이 말이다. 시기적으로도 두 목사 모두 며칠 안에 각자 목회지로 이사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알버커키 감리교회 후임도 벌써 정해졌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알버커키로 내려오라는 제안이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버리토 먹어보려 한 번 내려가고 싶었다고 말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아예 보따리 싸서 이사 오라는 제안을 받게 되니 어안이 병병하였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지 알 수가 없었다. 목사가 목회지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도 생각해야 하고 가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갑작스런 제안인 데다가, 저는 지금 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의논해본 후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아내는 보스턴에 10년이나 살았으니 목회지를 옮겨보

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보스턴 라틴 스쿨 9학년인 큰 아들은 반대한다. 자기는 보스턴에 남아서 혼자 학교를 다니겠다는 것이다. 케임브리지 중학교 6학년인 둘째 아들은 따라가겠다고 한다. 교회 문제가 남았다. 보스턴 좋은 감리교회. 당시에 교회에 는 나 말고도 목사가 둘, 전도사가 셋이 있었다. 목회자 수만 모두 여섯이 되는 셈이다. 이들 중에 신학교 후배이며 연장자격인 김지호 목사에게 이 문제를 논의했다. 김지호牧사는 후임 담임자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된 후에 송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해서 나의 의향을 전달했다. 이후 송 목사님이 당시 중남부 지역 선교 감리사님이셨던 나정용 목사님에게 나를 소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감리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후임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지방 감리사가 감독의 인준을 받아서 담임 목회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 이때까지는 내 의향만 전달한 것뿐이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다.

이 일이 있던 그 다음 주간에 나는 4월 20일부터 열리는 감리교 연회에 참석차 LA에 갔다. 연회를 마친 후에는 곧장 한국으로 가서 두 주간 동안 인천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였다. 한국에 있는 동안 보스턴에 있는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정용 감리사님이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내에게 서류가 있는 곳들을 알려주고 직접 보내라고 했다. 며칠 후 알버커키 감리교회 이경화 장로님이 한국에 있는 나에게 전화를 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버커키에 들러서 교인들과 인터뷰를 하자고 제의를 한 것이다. 여차피 비행기가 LA를 경유해서 보스턴을 가도록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알버커키 감리 교회에서는 LA에서 알버커키로 왔다가 다시 보스턴으로 가도록 비행기 일정을 조정해주었다. 아직 한국에 있었을 때였다. 한밤중에 전화가 온 것이다. 자다가 깨서 받아보니 당시 알버커키 지방 감리사인 Larry Hall 목사님이었다. Hall 감리사님이 한국과 미국의 시간 차이를 모르고 전화한 것이었다. 통화하면서 5년 전에 아내가 러브레이스 병원에 입원한 일과 그때 알버커키 감리교회 가서 설교 했던 일을 언급했다. 이후 Hall 감리사님은 이경화 장로님께 전화를 걸어 내가 5년 전에 알버커키 감리교회 와서 주일 설교 했었던 목사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사실 이전까지 알버커키 감리교회 교인들은 김기천 목사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2004년 5월 7일 LA에 도착한 후에 이어 알버커키로 향하는 비행기로 갈아탔다. 알버커키에 도착해서 교회 임원들과 지금의 친교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에 최영심 권사님이 "5년 전에 보스턴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경화 장로님이 "바로 그 목사님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벌써 임원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눈치들이었다. 모두 환한 미소로 나를 대해주셨

다. 알버커키에 며칠 머무는 동안 Hall 감리사님도 직접 만났다. 이틀 후인 5월 9일 알버커키 감리교회에서 주일설교 한 후에 교인들에게 인사를 했다. 임시지만 이렇게 해서 나는 알버커키 감리교회 담임목사가 된 것이다. 정식으로 담임목사로 감독의 임명을 받은 것은 6월 5일이었다. 담임 목사가 공식중인 알버커키 교인들은 내가 빨리 내려오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사실 내가 알버커키 감리교회 담임목사로 결정된 것은 한국에 여행할 때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보스턴 교회 교인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 빨리 돌아가서 보스턴 교인들에게 정식으로 알린 후에 교회를 이임하고 새로운 담임목사를 세워놓아서 교회가 흔들림 없도록 해야 할 일이 남은 것이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에 교회 일과 가족 일들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정들었던 교우들과 헤어지는 일이 그리 쉽지 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바뀌는 과정에 교인들이 흔들림 없이 모두 잘 협조해주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삿짐을 싸서 보내고 5월 28 일 아내와 함께 돌아 2박 3일 동안 보스턴에서 운전을 해서 30일 오후에 알버커키에 도착했다. 도착한 날부터 며칠 동안 장상순 권사님이 운영하는 하워드 존슨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6월 2일부터 5일까지 글로리에타에서 열리는 연회에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

이후 아내는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학교가 끝날 때까지 있었고 나는 옛날 사택에서 몇 주간 동안 이삿짐을 기다리며 혼자 생활하였다. 아이들 학교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내는 작은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고 큰 아들은 끝내 보스턴에 남아서 혼자 자취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생전 처음 해보는 자취생활인지라 결국에는 혼자 6개월을 버티다가 포기하고 겨울방학 때에 알버커키로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은 6개월만인 2004년 12월에 모두 합류하여 알버커키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추천하고 싶은 Santa Fe와 인근지역의 명소

이경화 장로

관광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월간 잡지로 "Travel + Leisure"라는 잡지가 있다. 매년 독자의 설문 조사로 북미주 안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 도시 10개를 선정하는데 Santa Fe(산타페)는 2008년과 2009년 두번 모두 5등으로 선정되었다. (금년도의 1등은 New York, 2등은 San Francisco) Santa Fe 도시가 스페인, 인디언 그리고 앵글로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기를 얻는 절대 이유가 되겠지만, 그 주변의 Taos와 Los Alamos지역의 자연의 아름다움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얻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Santa Fe 도시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살면서도 *Santa Fe*의 진가를 잘 모르고 사는 한국교포가 많은 것 같다. 광야의 소리 이번호에서는 *Santa Fe*와 인근 지역의 명소 중에서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은 곳 몇 곳을 골라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Santa Fe란 이름은 스페인어로서 영어로 번역하면 Holy Faith, 즉 "거룩한 믿음" 또는 "성스러운 신앙"이란 뜻이다. Santa Fe 도시가 등지고 있는 산 이름도 성스러운 이름이다. 산 이름은 스페인어로 Sangre de Cristos인데,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피"란 뜻이다. 도시의 역사 또한 놀랍다. 1610년 스페인에 속한 이 지역의 수도로 탄생하여 미국 내에서는 제일 역사 깊은 수도가 된다. 청교도인이 보스턴 근처인 Plymouth에 처음 도착한 1620년보다 10년 전이 된다. 지리적으로 산타페는 해발 7199ft(2134m) 고지에 있고, 알버커키 다운타운과 비교한다면 약 1,887ft(515m) 가량 더 높은 곳에 있어서 여름 기온을 비교해보면 알버커키보다 10도 정도 낮다.

Santa Fe Visitor Information Center

Santa Fe에 처음 방문하는 경우라면 이곳을 먼저 방문할 것을 권한다. Paseo De Peralta와 Old Santa Fe Trail의 사거리에 둥그런 원형으로 지은 New Mexico State Capitol(주청사)이 있는데, 사거리에서 동쪽 편 주청사와 마주보는 위치에 Visitor Center가 있다. 안내소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상세한 산타페 시내 지도와 인근지역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무료로 얻을 수 있고 친절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때로는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다.

- 주소: 491 Old Santa Fe Trail, Santa Fe, NM87503.
- 전화: (505)827-7336,
- GPS 좌표: N35° 40.984 W105° 56.259

San Miguel Chapel

위에 언급한 Visitor Center의 건물 옆 북쪽에 자리잡은 이 오래된 Adobe 양식의 이 교회는 미국 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로 알려져 있다. 1610년에 지었는데 1680년 푸에블로반란(Pueblo Revolt)으로 지붕은 불에 타버렸으나 1692년 지붕을 다시 복구했다.

- 전화: (505)983-3974,
- Mon.~Sat: 9am~5pm, Sun: 10am~4pm, 입장료: \$1

Loretto Chapel

San Miguel에서 Old Santa Fe Trail 도로로 두 블럭 북쪽으로 내려가면 Adobe 건축물 Loretto Hotel이 나오고, 다음에 작은 교회 Loretto Chapel이 나온다. 1873년에 지은 고딕식 건물인데 그 안에 있는 스프링

나선 형태로 만든 나무계단이 유명하다. 360도로 두 번 회전하며 성가대석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은 못을 전혀 쓰지 않았고 계단을 지탱해주는 기둥 또한 없다. 성가대석과 계단 공사를 앞두고 수녀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날 이름 모르는 목수가 나타나 자원해서 계단을 만들어주고는 대가도 받지 않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는 전설이 있다.



<Loretto Chapel 입구에 있는 나무 조각상은 나선형 계단을 만든 목수를 상징한다>

Santa Fe Plaza 와 Canyon Road

처음 오는 관광객에게 Santa Fe Plaza는 빼 놓을 수 없는 곳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들이 많아서 공예품이나 미술품 등 shopping하기에 좋은 곳이다. 그러나 수준 높은 공예품이나 그림, 조각 등을 보려면 Canyon Road를 따라가면서 화랑과 상점을 둘러보는 게 좋다. 산타페에는 250개가 넘는 화랑이 있는데 약 100개의 화랑이 Canyon Road 길가에 모여 있다. 그림이나 공예품을 사지는 않더라도 미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곳이다. 이곳을 보면 왜 산타페가 New York과 LA에 이어 미국의 미술 3대 시장에 꼽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Canyon Road에는 많은 화랑이 모여있다>

Museum of International Folk Art

국제민속예술 박물관이다. Plaza에서 남쪽으로 약 2마일 Old Santa Fe Trail을 따라가면 박물관이 모여 있는 Museum Hill에 있는데 전 세계 100여국의 민속미술품 1000여점이 전시되어있다.

개관시간등 상세한 점은 아래 Website를 보면 된다.
<http://www.moifa.org/visitors/faq.html>

인디언 예술 문화 박물관(The Museum of Indian Arts and Culture)도 옆에 있다.



<Adobe 건축물인 Museum of Fine Art는 Santa Fe Plaza 서편에 있다>

두 박물관 외에도 Plaza옆에 있는 New Mexico History Museum(Palace of the Governor)(<http://www.palaceofthegovernors.org>)과 Museum of Fine Arts(<http://www.nmartmuseum.org>)도 가볼만 하다. 이상의 주정부의 박물관에서는 모두 16살 이하 어린이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매주 수요일 60세 이상의 노인은 무료입장의 혜택이 있다.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박물관으로 Georgia O'Keeffe Museum이 유명하다. Plaza에서 약 200m 정도 서북쪽에 있다. (<http://www.okeeffemuseum.org>)

다음으로 산타페 인근 지역과 로스 알라모스와 타오스 지역의 몇 곳을 더 소개한다.

Bradbury Science Museum

Los Alamos에 있는 과학박물관이다. 이곳에 있는 국립연구소, Los Alamos National Labs의 원자탄 개발 역사와 핵물리 전반에 관한 개발현황을 볼 수 있다. 2차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일본에 떨어뜨린 두개의 원자폭탄 모형도 전시되어 있다. 자녀와 함께 가는 여행일 경우 어린이의 과학에 관한 흥미를 키우기 위해 꼭 한 번 들를 것을 권하고 싶다. Museum 주소와 개관시간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GPS좌표:N35° 52.90 W106° 17.91

<http://www.lanl.gov/museum/>



<Los Alamos의 Bradbury Science Museum에 있는 원자폭탄 모형>

Chimayo

Santa Fe에서 Taos로 가는 길 도중에 들를 수 있는 작은 마을 치마요에는 Santuario de Chimayo란 작은 교회가 있다. 산타페 지역에서는 매년 부활절 전의 Good Friday 전후를 기해서 약 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도보로 걸어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 행렬로 성황을 이룬다. 1814년에 지은 이 교회가 성지화 된 까닭은 많은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산타페에서 가는 방법은 US84로 Espanola 방향으로 가다가 시내 들어가기 전 NM399와 만나는 사거리에서 동쪽으로 우회전하면 그 길이 State Route106이다. 약 0.8마일을 더 가면 NM76/Santa Cruze Rd가 나온다. 우회전해서 6.5마일 동쪽으로 가다가 Juan Marina Rd/SR520에서 우회전하여 1마일을 가서 Santuario Dr에서 좌회전하면 된다.

□ GPS좌표:N35° 59.32 W105° 55.93

<http://chimayo.org>



<Chimayo Chapel.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 교회>

Taos Visitor Center

타오스는 인구 5,551명(2008년도 기준)의 작은 도시이나 80개의 화량이 있는 작은 산타페 같은 곳이다. 타

오스에 처음 방문하는 경우라면 제일 먼저 이 곳에 들러서 필요한 안내자료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NM68과 NM585도로가 만나는 남동쪽 코너에 있다.
주소:1139 Paseo del Pueblo Sur, Taos, NM87571
Tel:1-800-348-0696, (575)758-3873.
GPS 좌표:N36° 22.74, W105° 35.34
<http://taosvacationguide.com/visitor-info-center>

Taos Pueblo



<Taos Pueblo에 있는 Adobe식 다층 거주 건물>

인디언 마을에 직접 들어가 현재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곳 Taos Pueblo는 Taos에 관광 온 여행객이 빠짐없이 찾는 곳 중의 하나다. 흙벽돌을 써서 다층구조로 지은 Adobe 건물이 자랑거리다. 지금도 150명 정도의 주민이 전기, 수도가 없는 불편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다. 1200년경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온 가장 역사 깊은 인디언 푸에블로다. 입장료는 \$100이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추가로 카메라당 \$5가 필요하다. UNESCO World Heritage Site로 지정된 곳이다. 방문할 수 있는(2~3월에는 공개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 시간과 특별행사 관계정보는 Website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한다.
<http://www.taospueblo.com/>

Rio Grande Gorge Bridge

타오스 서쪽의 넓은 평지 중앙을 잘라버린 리오 그란데 협곡(Gorge)은 콜로라도주까지 이어진다. 이 협곡을 가로질러 철근 다리를 1965년에 건설했다. 미국에서 다섯번째로 높은 다리가 된다. 다리 양편에 피크닉 그라운드와 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협곡과 그 사이로 흐르는 리오 그란데 강의 경치가 장관이다. Taos에서 64번 도로로 서북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가면 그곳에 이른다.

Taos 근방에 가볼만한 곳이 이 밖에도 여러 곳이 된다. 북쪽 산기슭에 있는 영국 소설가 D. H. Lawrence가 살았던 Ranch(현재 뉴멕시코 대학에서 관리. 연합감리교회 주일학교 수양회로 간 일도 있다)도 뜻 깊은 곳

이다. 여류화가 Georgia O'Keeffe도 이곳을 방문했고 또 거기서 그림도 그렸었다. 겨울 스키 매니아에게 인기 있는 Taos Ski Valley는 여름에도 가볼만한 곳이다. 그 곳에서 올라가는 하이킹 코스 중에 11,000ft 고지에 있는 Williams Lake에 이르는 Trail은 가족이 함께 가기에 좋은 코스다(왕복 4마일). 뉴멕시코에서 제일 높은 산 Wheeler Peak(13,161ft)에 오르는 왕복 15마일의 Trail도 스키장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인기 있는 등산코스이지만, 아마추어에게는 워낙 고지대인 까닭에 힘든 코스다.

Taos 북쪽 Red River지역도 물 좋고 경치 좋은 지역이다. 우리 가족이 캠핑하러 자주 갔던 곳이다.



<타오스에 있는 Rio Grande Gorge Bridge. 650ft 밑으로 리오 그란데 강이 흐른다>



<Wheeler Peak산 밑에 있는 Williams Lake는 11,040ft 고지에 있는 빙하에 의해 만들어진 호수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타페 지역 소개를 마친다. 보여드리고 싶은 곳을 다 언급 못하고 끝을 맺는 아쉬움이 있다. 그만큼 추천하고 싶은 곳이 많은 곳이 이 산타페와 타오스 지역인 것이다. 이런 곳과 가까이 사는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리라 믿는다. 이 기사와 관련된 사진 24 장을 아래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슬라이드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http://picasaweb.google.com/hikingnm>

위기

이 정길

전남대학교 명예 교수

2008년 가을에 발생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지구촌 곳곳을 예외 없이 강타했다. 대공황이라고도 부르는 경기불황이 일 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그 바닥이 보이지를 않고, 망가진 금융시장은 많은 문제를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느슨한 통화정책을 채택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세기 말에서부터 21세기 초에 걸쳐 투기적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급속하게 비대해진 새로운 금융자본인 투자은행이나 신탁회사들이 금융시장이 개방되자 지불불능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들은 은행인 체 하지만 실체는 기업이며, 투자에 따른 이득은 챙기면서 위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사회에 떠넘겨버리는 도덕적 해이라는 근본문제를 안고 있었다.



1980년부터 약 30년 동안 미국의 경기는 그야말로 호황을 누렸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집값은 올라가는 것이다. 집값이 올라갈 기미를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두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다. 은행 등에서 빚을 낼 때는 신용등급을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고정이율과 일정기한부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세기를 마감하는 해에 생겨난 것이 씨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이었다. 이 회사는 부동산담보대부를 전담하는 기업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몇 가지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이 회사에서 해준 부동산을 저당한 대출은 약 80퍼센트가 변동이율이 적용되는 융자 ARMs 이었다. 처음에는 비교적 낮은 고정이율을 적용하여 돈을 빌려주는 나중에 일반금리수준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이율을 조정할 수 있는 대출이었던 것이다.

오르기만 하던 주택가격이 2007년 들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동안 일었던 거품이 꺼져버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 바람에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고, 거기다 융자금의 이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어 상환금의 연체와 저당물의 유질流質이 급증하면서 씨브프라임 모기지는 와해되어버렸으며, 사태는 관련된 많은 금융회사들의 주가 폭락과 은행들의 자본손실로 번져서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던 것이다. 불경기의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집에서 쫓겨나 자동차에서 잠을 자거나 시청에서 마련해주는 임시거처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

위기 危機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한 고비나 경우' 다.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사건 따위에 있어서의 중대국면을 말하는데, 전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경제적 중대국면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위기라는 단어는 분명 '안전하지 못하여 신체나 생명에 위해 또는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뜻하는 위와, '어떠한 일의 미묘한 기틀이나 눈치 즉 기미'를 뜻하는 기가 합해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기를 기회의 준말로 풀이하여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표현을 곧잘 사용한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실제 "죽음은 영원한 잠이다."처럼 하나의 암유暗喻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한 착오가 아주 명백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1930년대에 발생한 미국의 대공황은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기회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의 구체적 예증이었으며, 그는 그 기회를 미국인들의 생활에 대변혁을 가져오는 데에 이용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여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면서 후세에도 도움이 될 정책들을 추진했던 것이다. 당시에 그가 수립한 상당수의 정책들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현재의 금융위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중요한 일에 바르게 대처한 정치적 천재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은 자신감을 가지고 폐기해버리는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을 지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그는 훌륭한 역대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추앙 받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변한다. 때로는 자기가 원해서도 변한다. 때로는 위기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최근에 보고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금융위기가 미국사람들을 크게 바꾸어놓은 것 같다. 미디어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지역에 사는 노동자 세일즈맨 교사 미용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대다수가 경제는 다시 변창할 것임을 믿으면서, 그렇게 되더라도 새로 발견한 검소한 생활습관은 계속해나가겠다고 응답했다. 곤궁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그 동안 누린 풍요로운 생활이 삶의 보물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일, 이 위기에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다고 응답했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사람이 나빠졌다는 사람에 비하여 네 배나 많았다.

경기후퇴는 미국인들의 사는 방법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기대감까지 변화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는 경기가 회복된 후까지도 이어지리라 믿고, 또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자의

적인 생활의 간소화는 박탈이나 희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돈 · 소유물 · 시간에 대한 만족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일이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새로이 결정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은 바로 종교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일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이다. 경제위기가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듯, 그에 따른 변화도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 10년 아니면 20년 후에 다시 태어나는 세상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2009. 6.>

기도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검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임상영양칼럼}

-건강을 위한 첫걸음, 식이요법으로 내담으세요!

제대로 알고 먹자-트랜스지방산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영양팀

혹시 어렸을 때 갓 지은 따끈따근한 밥에 마가린과 간장을 넣어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트랜스지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사실 동물성지방이 몸에 좋지 않으므로 대신 식물성지방인 마가린을 먹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가린과 같이 트랜스지방을 많이 함유한 음식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도 많이 하고, 트랜스지방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악동" 트랜스지방에 대해 알아볼까요?

불포화지방은 콩기름, 옥수수기름 등의 식물성지방에 많고 자연상태에서 주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반면 포화지방은 동물성지방에 많고 자연상태에서 주로 고체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불포화지방은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A-1

ORIENTAL
MARKET

Everything You Need for Sushi

日本の食品
한국식품

Constitution

◀ N Wyoming

(505) 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산소를 만나면 쉽게 변질되고, 액체이기 때문에 운반과 저장이 어려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에 수소를 첨가하는 가공 과정을 통해 포화지방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만든 것이 바로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경화유인데, 이 경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되게 됩니다. 비록 경화유가 불포화지방을 겉모습만 포화지방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 안에서 포화지방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포화지방보다 더 나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트랜스지방은 고소한 맛을 내어 음식에 특유의 향미를 주고, 바삭바삭한 질감을 주어 튀김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 액체상태인 불포화지방보다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나 과자, 빵, 팝콘, 도넛, 케익**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널리 사용되어 오던 트랜스지방이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트랜스지방과 건강과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학회지 LANCET에서는 트랜스지방 섭취를 2% 늘리면, 심장병 발생 위험이 28%나 높아진다는 역학조사를 발표했으며, 1999년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는 트랜스 지방이 몸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포화지방보다 2배나 더 해로운 최악의 지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세계보건 기구(WHO)는 성인의 하루 트랜스지방 섭취를 총 칼로리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성인이 하루 2000kcal 정도를 섭취한다고 봤을 때 약 2.2g의 트랜스지방 섭취량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식약청에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제품 100g당 비스킷에는 1.6g, 감자튀김에는 2.0g, 초콜릿 가공품에는 2.1g, 케익류에는 2.5g, 전자레인지를 팝콘에 11g 정도의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00g만 섭취해도 하루 섭취 제한량을 넘게 되는 식품들이 많이 있으므로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공 식품을 가능한 한 먹지 않아야 하고, 튀김 시 쇼트닝 보다는 액상의 식용유를 사용하고, 토스트나 볶음 요리에 마가린 사용은 줄여야겠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부터 영양표시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가공 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표시에 표기된 트랜스지방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지방은 음식 맛의 풍미를 살리고 보관을

더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건강에는 포화지방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내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제대로 알고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트랜스 지방 함량 뿐 아니라 동시에 지방 섭취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이 균형 잡힌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작은 비밀번호

일상의 풍요로움은
욕심 그릇을 비워서 채우고
자신의 부족함은
차고 매운 가슴으로 다스려줘
타인의 허물은
비람처럼 선들선들 흐르게 하라.

생각은 늘 희망으로 깨어있게 손질하고
어떤 경우도 환경을 탓하지 말며
결코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미움은 불과 같이
소중한 인연을 제로 만들고
교만은 독과 같이
스스로 찢벌케하니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면
조용히 침묵하라.

악한 일엔 눈과 귀와 입을
함부로 내몰지 말고
선한 일엔 몸과 마음을
이낌없이 탕진하여 삶의 은혜로움을
깊고 깊은 사랑으로 완성하라.

식사를 간단히, 더 간단히
이루 말할 수 없이 간단히 준비하자
그리고 거기서 이끼 시간과 에너지는
시를 쓰고, 음악을 즐기고,
자연과 대화하고, 친구를 만나는 데 쓰자.

- 헬렌 니어링 <소박한 밥상> 중에서 -

알면 도움이 되는 업소 정보

1) 기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며칠 전에 기타를 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기타 목 부분의 기타 줄 간격을 잡아주는 플라스틱(Nut)이 제 기능을 못하고 맨 아래 줄이 자꾸 미끄러져서 빠져버린다. 하는 수 없이 부엌칼을 가지고 홈을 내서 기타 줄을 고정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홈이 깊어서인지 기타 줄이 자꾸 Fret에 닿으면서 잡음이 생겼다. Nut를 바꿔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Menaul과 San Pedro에 있는 Guitar Center로 갔다. 아무 Nut이나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타마다 사이즈와 간격이 다르란다. 결국 기타를 들고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맞는 Nut이 없다고 한다. 그러더니 명함 한 장을 꺼내주면서 그리로 가보라고 한다. "Studio Guitar"라는 곳인데 106 Morningside Dr., NE에 있다고 한다. Morningside란 길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고는 명함을 건넨 사람이 Nobhill 근처라고 한다. 대충 감을 잡고 San Mateo에서 Central을 타고 Nobhill쪽으로 내려갔다. 운전하며 길 이름을 확인하면서 가다가 마침 길을 찾아냈다. NE 쪽으로 아주 조금 들어가면서 10601번 번호를 확인했다. 간판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예술적인 분위기의 주인이 기타를 수리하고 있었다. 내 기타의 문제를 말했다. 주인은 이내 기타 줄을 풀고 Nut에 가루를 뿌리고 본드를 붙이고 하더니 다시 기타 줄을 맞춘다. 불과 2분도 안 걸렸을 것이다. 수리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금방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다 고 한다. 인상적이었다. 조금만 도와주어도 돈으로 계산하려는 보통 사람과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래도 전문가인데 말이다. 기타만 수리하느냐고 물었더니 일반 현악기들은 다 손을 본다 고 한다. 혹 기타와 같은 현악기에 문제가 있으면 추천하고 싶은 가게이다.

Studio Guitar: Stringed Instrument Repair

(www.studioguitar.com)

Bill Richardson (bill@studioguitar.com)

(505-265-9102)

106 Morningside Dr. NE, Albuquerque, NM 87108

2) 전자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파는 곳

일반적으로 전자 부품을 사려면 Radio Shack을 찾는다. 그 외에도 다른 곳을 찾는다면 다음 장소를 소개하고 싶다.

Electronic Parts Co.

(주소: 2620 Rhode Island St NE, Albuquerque, NM

전화: 505-293-6161)

Walker Electronic Supply Co.

(주소: 3347 Columbia Dr NE, Albuquerque, NM

전화: 505-883-2992)

{종교 소식}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에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에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전도사님

주일에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전 목사님

주일에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0:00 am (Sunday)

수요일예배 (Wed. Night Worship)

§ 7:30 pm (Wednes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세계의 다양한 크리스마스 풍습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크리스마스는 11월말 대강절의 계절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와 각 가정에서는 대강절 찬송을 부르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세계의 성탄절 풍습 가운데서도 특히 아름다운 풍습을 갖고 있다. 이 나라의 성탄절 축제는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집안의 창문이 있는 곳마다 촛불을 켜 놓는다. 그리고 창을 조금씩 열어둔다. 이것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빌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촛불을 켜서 창을 열어두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하여 마구간을 찾아 해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아침에 메리 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나 여인이 촛불을 끄도록 되어 있다.

■멕시코■

멕시코에는 포사다스라고 불리우는 축제가 있다. 포사다는 12월 16일에 시작되는데 순례자의 축제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12월 16일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손님을 기다린다. 포사다스의 본래 의미는 쉬, 휴식이다. 즉,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기거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고생하였던 일들을 기억하는 축제가 행해지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는 스페인 이끼와 상록수 가지로 집을 꾸민다. 그리고 집안의 한 곳을 마구간처럼 장식한다. 소나무 가지와 이끼 따위로 작은 단을 만들고 여기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재현시킨다. 이들은 그 둘레에 마태복음 및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반들의 양떼들과 밤을 지새우는 목자들, 큰 별, 동방박사를 꾸미기도 한다. 그런 다음에 이곳 사람들은 다른 집을 방문해서 "빈 방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라는 대답을 그 집의 주인이 하는 등 요셉과 마리아의 베들레헴 순례를 재현해 본다.

■이집트■

기독교의 성립 후 처음 300년 동안에는 성탄절 축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온 교회의 관심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육

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사상가들이 주님의 인성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교회도 성육신의 심오한 의미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특별히 동방의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교회는 성탄절을 기쁨과 경이로써 축하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성탄절에 대한 기록 중 최초는 4세기 초기의 이집트 파피루스에 남은 기록이다. 이 파피루스에는 수많은 손자국들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이미 그 파피루스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파피루스는 4세기 초의 성탄절이 1월 6일 저녁부터 7일까지 축하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왜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냈을까? 2세기에 있었던 이단 분파인 알렉산드리아의 영지주의 추종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날(1월 6일 또는 10일)을 축제일로 지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신성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한편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

러시아의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닌, 그보다 13일 늦은 1월 7일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유래가 있는데, 슬라브 정교의 전신이었던 동방정교회는 옛 동로마제국의 국교로 현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발달한 기독교 중 하나다. 1500년대 말까지는 동방정교회와 가톨릭 등 전 기독교계는 로마시절부터 내려오던 율리우스력을 따랐으나 가톨릭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의 제정에 의해 1582년 동방정교회를 제외한 서구세계가 개정된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게 됐다. 율리우스력은 그레고리력보다 매년 11분이 늦어 현재는 총 13일로 차이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는 동방정교회권은 크리스마스 등 전통행사들을 서구보다 13일 늦게 맞고 있다. 이곳 크리스마스 축제의 가장 큰 행사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해당하는 '사첼닉'이다. 러시아의 크리스마스는 옛 소련시절엔 무신론 원칙 때문에 없어지다시피 했으나 91년부터 소련방의 해체이후 가장 큰 축제가 되었다. 러시아에도 산타클로스가 있다. '테드 모로자(얼음 할아버지)'라는 러시아 산타클로스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 12월 31일에 온다. 또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러시아 산타클로스는 '스네구르크(눈의 아가씨)'라 불리는 여자 파트너와 함께 다닌다는 점이다.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p>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p>	<p>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p>
--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lbuquerque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505-899-0096)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lbuquerque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lbuquerque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505-271-8700)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2302 Morris
NE, Albuquerque
(505-463-646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lbuquerque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lbuquerque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87103
(505-242-8542)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킴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W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lbuquerque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lbuquerque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i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P.O.Box
94855, Albuquerque, NM
87199
(408-334-7227)

샌타이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505-823-1678)

알버커키 장로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lbuquerque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US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NE, B36 ABQ,
NM 87111
(505-296-0336)

한의원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710-750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 27 (505-764-1900)

하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505-345-6644)

중재서비스

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lbuquerque, NM 87112 (505-332-9249)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 # 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황세희씨 남편 Damon Duran)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8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l,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CPA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8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사고/팔고

렌트/부동산

구인/구직

도와주세요

정보마당

연방 국세청 IRS - Tax Advocate Service에서 지정한 본 회사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서류 신분에 관계없이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처리 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게일' 을 찾으세요. **Low Income Taxpayer Clinic Imperial Services Corp.** Nonprofit Organization 7103 4th Street NW, Unit O-3 Albuquerque NM 87107 Tel: 505-503-7252 www.imperialnm.org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